

'시대의 춤꾼' 故이애주 선생을 기리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고(故) 이애주 선생의 1주기를 추모하는 책 출판기념회 및 '학예곳 이애주 춤이 오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이애주문화재단(이사장 유홍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애주 선생의 저작 '승무의 미학', '고구려 춤 연구', '춤꾼은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 등 세 권의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이애주문화재단이 선생의 1주기를 맞아, 그가 남긴 춤에 관한 연구논문과 글을 모으고 주제별로 분류해 펴낸 책이다.

'승무의 미학'은 한성준으로부터 시작돼 한영숙에게 전수되고, 이애주 선생으로 이어진 '승무' 형성의 역사를 보여 준다. 승무 춤사위의 원리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정리했다. 한성준에 대한 연구와 승무에 관한 미적 고찰과 이애주 선생이 채록한 한영숙 춤 승무의 무보를 합본으로 묶었다.

'고구려 춤 연구'는 선생이 천착한 대주제로, 우리 춤의 본질을 캐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기도 한 이 책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 춤의 구조와 유형을 체계화하고, 춤의 미적 가치와 특성, 상징체계를 밝히고 있다.

'춤꾼은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는 구술 채록집으로, 이애주 선생이 남긴 생애사를 글로 바꾸고, 여기에 선생의 다른 글들을 추가해 사진과 함께 재구성했다.

이애주 춤의 세계 조망... '학예곳 이애주 춤' 오후 3시에는 이애주문화재단과 민족미학연구소, 한국전통춤회의 주관으로 '학예곳 이애주 춤'이 진행된다.

행사의 좌장을 맡은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은 "고 이애주 선생의 1주기를 맞아 선생의 춤 한 살매를 되짚어보고 그의 치열했던 우리춤에 대한 고민과 예술철학을 헤아려보겠다"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채 소장은 "'학예곳'은 일반적인 학술행사와 달리 학문과 예술이 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형태로, 삶의 현실을 밝히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이 곧 학문(학술)과 예술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지은 말이다"고 설명했다.

학예곳의 첫째 마당은 학술발표로 ▲임재해(안동대 민속학과 명예교수)의 '이애주 춤의 현장성과 변혁적 운동성' ▲문무병(제주신화연구소 소장)의 '이애주의 춤과 제주 4·3 차사영맞이' ▲김익두(전북대 국문과 명예교수)의 '이애주춤과 남학' ▲채희

1주기 추념 출판기념회·학예곳 행사 27일 과천 이애주문화재단서 개최 '승무의 미학', '고구려 춤 연구' 등 출간

완(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명예교수)의 '초기 이애주춤의 활동상과 예술선언' ▲조경만(목포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의 '이애주춤과 세상' ▲김연정(제자, 한예중 겸임교수)의 '이애주 선생의 춤 활동과 예술정신의 배경' 등이 주제 논문을 발표한다.

발표 후 정병훈 국립경상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자유토론을 이어간다.

둘째 마당은 예술행사로 한국전통춤회와 한국민족춤협회가 선생의 '영가무도', '바람맞이'를 각각 재현한다. 또한 풍물굿패 살터의 한판 풍물굿, 창작판소리연구원의 소리 공연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은 집들이 마당으로 이애주 선생의 유품과 자료를 함께 둘러보고, 음식을 나눠 먹는 '나눔과 돌아봄'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임택 이애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학예곳 이애주 춤은 지난 2012년 이애주 선생의 서울대학교 퇴임기념 학예곳 '한국춤의 생성론과 이애주의 춤세계'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행사"라며, "앞으로 몇 번의 학예곳을 거쳐 논문들을 모아 선생에 대한 평론집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경아 기자



'영가무도'를 실연하고 있는 故이애주 선생. 이애주문화재단 제공



故이애주 선생의 저작 '승무의 미학', '고구려 춤 연구', '춤꾼은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 이애주문화재단 제공



벚미술관 기획 전시 '그리니:green' 전경. 벚미술관 제공

'초록 휴식'이 그림다면 '그리니:green'

용인 벚미술관, 7월 31일까지 전시 마키토이·범진용·안소현·이영리 참여

경기 용인시 벚미술관은 '초록과 휴식, 식물'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 '그리니:green'을 오는 7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친 일상에,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이 되고자 마련됐다. 마키토이, 범진용, 안소현, 이영리 4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에서 기록된 휴식 시간을 만나볼 수 있다.

안소현 작가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공간을 담아낸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 작가의 환상을 담아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했다.

범진용 작가는 '풀' 시리즈로 관람객을 만난다. 풀 시리즈는 사람이 머물다 떠난 이후 폐허가 된 공간에서 피어난 잡초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특히 '숲' 작품은 6m에 다다른 압도

적인 크기로 관람자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키토이 작가는 '페이퍼 드로잉(paper drawing)'과 '365 드로잉(word drawing)' 시리즈를 선보인다. 마키토이 작가는 자연의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이나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식물의 이미지를 매주 6일간 페이퍼 컷아웃(paper cutout) 방식으로 새롭게 재현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영리 작가는 우리 일상 속 풍경을 담았다. 작가는 풍경을 보고 그리는 과정이 우연히 멋진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과 닮아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느꼈던 이 감정을 그림을 통해 관객과 함께 공유한다.

한편, 벚미술관은 전시 주제에 맞춰 '나에게 주는 초록 선물' 체험을 진행한다. 입장 티켓 발권자에게 코인과 화분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시장 내부에서 자신만의 그린팻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정경아 기자

양상한 겨울나무가 들려주는 생에 대한 의지

남빛 작가 개인전 'The Dance of Life' 양주 안상철미술관에서 6월 10일까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생기 뿜어내는 나무는, 그 다음 계절의 꽃과 열매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에너지를 비축한다.

이런 겨울나무의 형상을 빌려 생(生)의 의지와 다양한 모습, 방향성 등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렸다. 경기 양주 안상철미술관이 남빛 작가 개인전 'The Dance of Life'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오랜 시간 현대적 수묵기법의 다양한 실험을 해온 남빛 작가는 이번 전시에 전시에서는 약 6.5m 대형작품 2점, 1.6m 작품 2점을 비롯해 중소형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겨울에 이른 나무가 양상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힘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남빛 작가 개인전 'The Dance of Life' 전경. 안상철미술관 제공

생태학적으로 겨울나무가 가지는 내면의 힘을 변화무쌍한 가지의 모습에 주력해 표현했다.

작품들은 겨울나무에서 나타나는 단단하고 굳건한 원통과 자유롭게 휘날리는 잔가지들의 대립적인 모습을 비춘다.

오는 28일에는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작가와 대화가 진행된다. 정경아 기자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여러분께서 경기공동모금회에 보내주신 성금은 절망 속에 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착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성금 :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우통장 입금 : 농협/143-01-092152/경기공동모금회
- 성품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쌀, 연탄, 김치, 난방용품 등 기부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은 사랑의 시작

나눔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 경기

기부상담 ☎ 031-220-7932 ARS 기부 ☎ 060-700-0006(1통화 2,000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모금·배분 기관입니다. <http://gg.chest.or.kr>

일러스트 재능기부 김영근